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GS건설

신화 속 낙원 거니는 듯... 푸르름 가득

GS건설이 지은 '복수원자이렉스비아'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1개동, 2607세대 규모로 지난 3월 입주했다.

'엘리시안'을 테마로 한 공중정원 같은 공간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엘리시움을 뜻하는 엘리시안은 영웅들의 낙원, 즉 이상향과 최상의 행복을 의미한다.

푸르름이 시작되는 '거울못엘리시안'에서는 수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총림, 다단의 목재 스탠드로 구성된 '카페틀 엘리시안'과 옆 공간으로 이어진 지하정원에선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보트 조형물, 난파선이 꾸며져 있는 탐험 공간 '레디투 트레블'에서는 색다른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부서진 배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고래 섬 아지트 '댄싱위드웨이'은 고래 위에서 바다를 향해하는 모험을 테마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GS건설은 입주민의 편리와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 룸,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만들었다. 야외에는 풋살장도 있다. 어린이들에게 모험가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설치됐다.

단지 인근에는 공공기관 이전 후 남는 부지를 개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터로

DL이앤씨

조형물·정원에서 탄생한 그림 같은 경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지어진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터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3개 동, 총 822세대 규모로 지난 2월 입주했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입주민을 위해 e편한세상만의 역량이 집중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적용했다.

C2 하우스는 소비자 니즈 분석을 통해 개발된 맞춤형 주거 평면이다.

단지에는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됐다. 실내의 통합 공기질 센서가 설치돼 입주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24시간 공기 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작동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된다.

단지에는 탑 모양의 조형물과 정원이 설치돼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림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정원 주변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 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카페, 작은도서관, 키즈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인천아라곶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계양천, 아라노을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전지원 기자



SK뷰 학익

SK에코플랜트

수생비오톱, 작은 농장에서 '특별한 경험'

SK에코플랜트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지은 'SK뷰 학익'.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14개동 1581세대 규모로 지난 9월 입주했다. 단지 중앙에 있는 '갤러리아아트리움'에는 예술적 미를 담은 조형적 휴게시설과 모던한 연못, 미술 장식품이 조화롭게 이뤄져 있는 럭셔리 휴게공간이 조성돼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 '수생비오톱'에는 개구리와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햇대 등 터전을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어냈다. '힐링북가든'에서는 선비의 지혜를 상징하는 학자수 '회화나무' 그늘 아래서 미래의 꿈을 꾸며 여유로운 도서와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실내골프연습장, GX룸, 키즈카페, 운동시설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야외 피트니스그라운드, 작은 농장을 즐길 수 있는 팜하우스 등도 있다.

단지 후문에는 꽃댕강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로맨틱가든'이 조성돼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색적인 그라스를 바라보며 한가로이 쉼을 즐길 수 있는 로맨틱 휴게공간이 있어 단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도보 거리에 학익초, 인주중, 인하대사범대학중·고교 등이 위치해 있고 수인분당선 인하대, 학익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인천2호선 연장 등이 예정돼 있다.

/전지원 기자

